

# “추대” 주장 속 행보는 따로

## 물살타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추대위 발족·간담회·월서스님 출사표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추대 준비위원회가 공식 발족되는 등 총무원장 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다.

20명의 교구본사 주지스님(대리참석 3명 포함)과 중앙종회의원 31명, 비구니 스님 6명, 선원장 2명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30일 대구 동화사 무설전에서 '32대 총무원장 추대 준비위원회 발족대법회'가 봉행됐다.

법회에서는 교구본사주지 8명, 중앙종회의원 7명 등 총 15명으로 총무원장 추대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3일 동안 총무원장 후보자를 추천받기로 했다. 상임위가 추천받은 후보를 대상으로 1주일 내 다시 1명을 추천하면, 추대위에서 이를 최종 인준한다. 선거로 돌입할 경우 추대위는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법회에서는 또 '제32대 총무원장은 합의 추대해야 합니다'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법적인 선거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종단내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선거인단 전원이 참여하는 '공명선거협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에서는 또 "제32대 총무원장 추대는 종단안정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을 해야 한다"며 ▲ '원용종단'의 확고한 기틀 확립 ▲ 중앙과 교구본사와의 조화로운 권한 이행 ▲ 승려노후복지문제, 불교관련 국가법령제정비 등 교육과 포교 복지 등 시급한 정책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앞서 28일 서울 타워호텔에서는 은해사 주지 법다, 대흥사 주지 몽산, 월서사 주지 정념 스님 등 3명의 발기인을 포함한 14개(대리참석 2개 포함)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후 정념 스님은 "지난 20일 대전 유성에서의 총무원장 합의 추대 서약은 특정한 계파에서 일부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뒤 "10월 6~7일 경 교구본사주지연합회 회의를 개최해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뜻을 하나로 모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또 '교구자치제 실현' 등의 차기 총무원장상의 원칙을 제시하며 "이에 합당한 후보를 총무원장으로 추대하는데 적극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는 문건이 나왔다.

한편 월서 스님은 29일 정릉 봉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화 1세대'로서 "우리 종단은 그간 끊임없이 정화와 개혁을 외쳐 왔지만 과연 만족할 결과를 창출했는지는 의문"

이라며 "더 이상 종단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소명의식 때문에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서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향후 종단운영 기초가 될 '4대 종단 운영안'과 종단운영 세부 정책 및 혁신안이 될 '8대 의제안'을 제시한 뒤 "누가 후보로 나오더라도 끝까지 경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공)는 29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금번 총무원장 선거는 우리 종단이 국민적 희망과 기대에 부응하느냐 못하느냐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선거가 청정과 화합의 전통이 진작되는 진면목을 보여, 종단과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떠한 비법적 선거행위도 엄정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남동우·배지선 기자



군중교구본사 주지 일면 스님(오른쪽)이 부주지 계성 스님과 전법선언을 하고 있다.

## “내실 관리·타종교와 교류”

### 군중특별교구 주지 일면·부주지 계성 스님 취임

조계종 군중특별교구 군중교구장 진산식(취임법회)이 9월 28일 오후 2시 국방부 국방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진산식에서는 초대군중특별교구 주지에 일면 스님이, 부주지에 계성 스님이 취임했다. 진산식은 '군포교의 발전'을 돌아보는 영상물을 상영하는 것으로 시작해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의 직인인 군중기인계, 선임 군승인 육군교육사령부 자운사 주지 김말환 법사의 축하화한 전달, 지관 스님의 법어 등으로 이어졌다.

이어 일면 스님과 계성 스님이 전체 군승과 함께 사부대중 앞에서 <불본행집경>의 '전도선언문'을 낭

독하는 것으로 끝맺었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지사를 통해 "군포교를 위해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과 방법을 제시해줄 바란다"고 말했다.

일면 스님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불사를 위해 내실 있는 관리를 하고 타종교와도 원활한 교류를 이끌어 내 보다 조직적·효과적인 교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위원 지관, 교육원장 청화, 포교원장 도영,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등 11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은비 기자

## 영축총림 방장추대무산

### 제167회 임시총회 "요건 미비"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추대의 건이 중앙종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또 동국학원 이사 선임 연기 촉구가 결의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9월 26일 제167회 임시중앙총회를 개최했다.

본회의장(국제회의장)에서 처음 열린 이번 임시총회에서 통도사 방장 추대와 관련 '법률적 요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부류하고, 관련 서류는 총회사무처에 접수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동대 이사 선출에 대해서는 임시총회 하루 전 후보자 1명이 사퇴했기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다만 찬성 31 반대 7명으로 중앙총회에서 동의할 때까지 이사 선임을 연기하도록 촉구 결의했다.

임시총회에서는 법제위원회에 보성지관 고산 인환 회장 월주 종진 설경 고우 스님을 위촉하는데 동의했다. 또 재심회계위원회에 세민 스님(前 환천 해인사 주지)을 선출했다. 종헌 개정 및 종법 제·개정 건과 관련, 종헌종법특위에서 각각의 안건에 대해 단일안을 만들 뿐 아니라 제·개정을 할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했다.

남동우 기자

## 조계종 교육분야 총회의원 법진 스님 선출

조계종 직능 대표선출위원회는 9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3차 회의를 열고, 중앙종회의원 직능직 교육보궐에 법진 스님(중앙총회 사무처장·사진)을 선출했다.



남동우 기자

## 종단내 절차 안 거치고 사회법 제소 '징계' 해당

종단 내의 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사법부가 종단의 자율성을 해치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신수갑)는 지난 9월 14일 부산 산천사 주지 정야 스님이 제기한 '해임무효' 소송에 대해 "징계 및 이를 전제로 한 조치해임처분은 결국 재판권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남동우 기자

## 승가단체 '화합승가포럼' 발족

### 조계종 35명 스님 "선거와 무관"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적극적 현실 참여를 모토로 한 승가단체가 발족돼 행보 및 영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랍 20여년 인품의 스님 20여명은 9월 23일 조계사 인공에서 모임을 열고 '화합승가포럼'을 발족했다. 화합승가포럼은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포교 및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는 스님들을 중심으로 10명의 준비위원을 포함해 35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5일부터 준비해왔다.

화합승가포럼 한 관계자는 "총무

원장 선거 등 종단 현안을 비롯해 각종 정책에 대해 문종과 계파와 관계없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포럼을 발족했다"고 설명한 뒤 "10월 12일 '바람직한 총무원장상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첫 포럼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 "포럼 구성원 개인 자격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할순 있어도 포럼 차원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남동우 기자



##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첫 삽'

"한국불교의 새역사를 창조합니다." 태고종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착공식 및 건립설계 원만성취 기념법회가 9월 29일 서울 시간동 법륜사 불사현장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원로회의 의장 일우, 총무원장 운산, 승정원장 난파, 사정원장 법장, 종회의장 인공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글·사진=강유신 기자

## 조계종 3급 승가고시 7일부터 범어사에서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과 고시위원회(위원장 법산)는 제5회 3급 승가고시 및 고시산림을 10월 7일 오전 10시부터 13일까지 6박 7일간 부산 범어사에서 개최한다.

승랍 10년차 이상 비구 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3급 승가고시는 지난해와 달리 1차 눈술고시와 2차 승가고시산림 성적을 평가해 총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획득한 스님에게만 합격증을 교부한다. 3급 승가고시는 2년 전부터 시험 과목과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됐다.

조용수 기자

<b>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b>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불교포털 부다피아 www.bu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물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예시마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종립 동국대학교 법인임원진은 종헌종법을 준수하라!!!

조계종단에서 파견한 종립 동국대학교 법인임원진이 종헌종법을 무시하고 10월6일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를 선임하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일이며 종립학교를 종단과 분리시키려는 음모에 다름 아닙니다. 특히 이는 9월26일 조계종중앙총회에서 결의한 이사선임 연기요청 마저 무시한 처사로 종단내 종단의 위계질서 파괴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26일 하루만에 폐회된 제167회 조계종 임시중앙총회에서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후보 추천동의의 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후보의 사퇴서를 현 동국대학교 이사인 중앙총회 총무분과위원장이 총회 개최 직전에 총회사무처에 제출함으로써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10일 회의를 갖고 오는 11월12일자로 이사임기가 만료되는 현 이사 후임으로 두분의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이날 후보이사 선출과정에는 현 이사 한분도 출마했으나 표대결에서 밀려 선출되지 못했습니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종립학교관리법 제7조 제4호·제12조 3·4항에 의해 이사·감사를 종단 산하 교육기관에 추천해야 하며, 종립학교 법인이사회는 종관위가 중앙총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후보를 이사·감사에 선임해야 합니다.

제167회 임시총회에서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는 결원이 된 1인의 이사후보를 종관위에서 재추천해 총회에서 동의절차를 밟을 때까지 이사를 선임해서는 안된다"는 결의를 참석이사 과

반수 이상으로 채택했습니다.

제167회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의원 스님들은 9월 27일자로 종립학교관리위원회와 임시중앙총회 소집을 요구했고, 종헌종법에 따라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10월7일, 제168회 임시중앙총회는 10월10일로 확정했습니다. 종단에서 파견한 종립 동국대학교 이사회 임원진이 공심을 발휘한다면 1개월전에 교육부에 취임승인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그동안의 관례로 보아 연기가 가능한 만큼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력이 있습니다.

또 사립학교법에도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2개월 안에 총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차기총회에서 이사후보 추천동의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종헌종법·사립학교법에 의거해 내년 1월12일 이전에 이사회를 소집해 후임이사를 선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종립 동국대학교 이사회 임원진은 어찌된 영문인지 법과 관행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총회 대다수 의원들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종립 동국대학교 이사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종단에서 파견된 이사회 임원진은 종헌종법을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약 중앙총회의 결의와 종헌종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는 종단의 책임있는 자세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종립학교를 사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것과 다를 아남을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총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이사회를 강행할 경우 응분의 책임을 저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불기 2549(2005)년 9월 30일

총회의원 정휴 도후 장운 종광 법보 혜승 향적 지만 진구 장적 선광 동광 원담 법경 도진 도문 무자  
일문 의연 법광 보경 정문 현공 성직 종본 보원 장주 자승 성원 원경 정도 광조 덕문 (이상 무순)